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컨텐츠산업 가운데 어문저작물 시장에서 저작자의 저작활동이 아닐로그에서 디지털로, 심지어 저작물 유통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자나 출판사는 물론이고 저작권의 규제 또는 관리기관에도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은 인터넷 웹 사이트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유통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디지털화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인터넷상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즐거움과 편리함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자유로이 누리면서도 지적창작물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나 저작권 관련단체에서는 시, 소설, 논문 등 기존의 저작물들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카페 및 홈페이지에 수록된 어문저작물의 불법 전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이용자의 비도덕성,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단속, 외래

즈사이트의 무분별한 확산 등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정석철 2003, 12-14).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나 배포를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취미 또는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김현철 2002, 7-8).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디지털시대의 관련 산업 발전과 각종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여 오히려 이용자의 복리를 후퇴시킨다는 관점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저작권의 발전방향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권리자의 보호 범위와 수단의 개발,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마리의 새가 날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개가 각각 역할을 해야 하듯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가 함께 강구되어야 바람직한 저작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정석철 2003, 12-14).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의 연구방법에 따라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

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범주는 시, 소설, 수필, 판타지, 논문 등을 들 수 있다(송영식·이상정 2003). 하지만, 여기서는 그 범주를 조사·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와 소설로 국한한다.

둘째, 판타지나 수필 등은 제외하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왜냐하면, 판타지 및 수필의 경우에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상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논문의 경우에도 서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불법성을 확인이 어려우며, 최근 들어 각 사이트들이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면서 기존의 논문제공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와 소설 관련 사이트 가운데 수록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셋째, 연구 대상은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싸이월드 카페, 프리첼 카페,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야후, 엠파스, 다음, 파란에서 '시' 및 '소설'을 검색어로 탐색되는 개인홈페이지 사이트로 한정하여 회원수가 1,000명 정도인 사이트들 가운데 1,000개의 사이트를 선정한다.

넷째,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 및 전자도서(e-book) 관련 웹 사이트들은 개설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각각 불법 복제 및 전송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한다(곽동철 2003, 113-130; 김기태 2002, 9-10; Hawkins 2002, 42-48).

다섯째, 해당 사이트별로 1일/월별/기간별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각각의 웹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접속 당시의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에 수록된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거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웹 사이트 개설 현황의 조사방법은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개인홈페이지에서 1,000개를 선정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수록 또는 유통 중인 어문저작물인 시, 소설, 논문, 기타 저작물 등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조사하고, 어문저작물의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웹 사이트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웹 사이트 실태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대상은 작성된 웹 사이트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몇 차례 접속을 시도하여 접속이 된 웹 사이트들 가운데 대상 표본 사이트를 결정하였다. 그 대상 사이트가 접속이 된 경우에는 "손님" 또는 "guest" 등의 ID로 서비스의 기본적

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셋째, 표본으로 추출된 웹 사이트 실태 조사 방법은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웹 사이트 실태 조사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료실, 게시판, 동호회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전체목록을 갈무리하였다.

넷째,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방법은 작성된 웹 사이트 실태 조사표의 내용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에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2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유통 현황

2.1 조사 대상 기관 선정

국내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우선, 주요 사이트에서 실제 어문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각각 선택하고, 이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관련 카페 및 홈페이지들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 카페'의 디렉토리별 카페 수는 소설(63,357개), 시(11,999개), 판타지(7,786개), 문학작가/작품(3,219개), 문학일반(8,601개), 수필(4,882개), 문학창작(10,000개), 독서/토론(8,860개)로서 총 118,704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의 디렉토리별 카페 수는 시/소설(6,806개), 문학창작(2,140개), 판타지/SF(2,060개), 독서토론(729개), 작가

/문인(360개), 문학일반(1,630개)로서 총 13,725개이다. 그리고 '싸이월드 카페'의 디렉토리별 카페 수는 문학(2,355개), 독서토론(248개), SF/판타지(192개), 시/소설/수필(442개), 작가/작품(525개), 또한 '프리챌'에서 문학/소설(4,444개)로서 총 8,206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요 사이트별 모든 카페나 홈페이지를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그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첫째, 각 카페나 홈페이지의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며, 둘째, 카페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어문저작물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셋째, 카페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나타난 글의 수가 100건 이상이고, 넷째, 불특정 이용자가 카페나 홈페이지에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수 있는 카페들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2.2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대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카페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사이트별 카페나 홈페이지의 수는 전술한 바와 같다. 즉, '다음 카페'에서 어문저작물 관련 카테고리 내에 존재하는 118,704개, '네이버 카페'에서 어문저작물 관련 카테고리 내에 존재하는 13,725개, 그리고 '싸이월드'와 '프리챌'에서 어문저작물 관련 카테고리 내에 존재하는 8,206개이다. 이처럼 시,

〈표 1〉 주요 사이트에서의 검색어별 검색 결과

	검색어	검색된 카페 및 홈페이지의 수
다음 카페 디렉토리별 카페수	소설	63,357
	시	11,999
	판타지	7,786
	문학작가/작품	3,219
	문학일반	8,601
	수필	4,882
	문학창작	10,000
	독서/토론	8,860
	계	118,704
네이버카페 디렉토리별 카페수	시/소설	6,806
	문학창작	2,140
	판타지/SF	2,060
	독서토론	729
	작가/문인	360
	문학일반	1,630
계	13,725	
싸이월드카페 디렉토리별 클럽수	문학	2,355
	독서토론	248
	SF/판타지	192
	시/소설/수필	442
	작가/작품	525
프리챌	문학/소설	4,444
계	8,206	
총계	140,635	

소설을 포함한 어문저작물 관련 카페나 홈페이지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네이버'와 '싸이월드' 및 '프리챌'을 모두 더해도 '다음 카페'의 약 18%에 불과하고, 그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카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조사·분석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표본 대상 기관으로는 '다음' 사이트와 기타 사이트와의 카페나 홈페이지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카페' 가운데 '시'와 '소설'과 관련하여 각각 450개와 '네이버'와 '싸이월드' 및 '프리

챌'에서 모두 100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태 조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카페나 홈페이지의 수가 1,000개 중 697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카페나 홈페이지로 범위를 확장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음' 사이트에서 90%, 기타 사이트 10%의 비율로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기타 사이트에서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카페나 홈페이지의 부족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93%, 그리고 기타 사이트에서 7%로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930개, 기타 사이트인 '네이버', '싸

이월드', '프리첼'에서 70개를 선정하여 총 1,000개 카페 및 홈페이지(이하부터는 '카페'로 약술하고자 한다)의 어문저작물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 연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거쳐 조사를 계속 실시하였다.

첫째, 실태 조사 진행 중에 소문 등에 의해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카페들이 이용 권한을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일반 이용자가 처음에는 회원가입만으로 카페의 게시물을 읽기가 가능하였으나, 나중에는 회원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만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었다.

둘째, 실태 조사 기간 중에 카페의 회원수가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한 카페도 있었지만 처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다음 카페'의 경우에는 어문저작물 가운데 시와 소설 관련 카페 수의 비율을 각각 50 : 50으로 배분하였다. 그러나 기타 카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각 사이트별 등록된 카페의 수가 부족하여 시와 소설을 구분하지 않고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카페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다음 카페'의 경우에 회원수가 500명 이상인 카페를 조사함에 있어 시나 소설 모두에서 표본 선정을 위해 필요한 카페 수보다 많은 수의 카페들이 존재하였다. 이 경우에 실태 조사를 위한 표본 카페로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카페 순으로 선정 대상을 결정하였다.

다섯째, 소설에 관한 카페의 경우에는 자작 소설이 많은 관계로 정확히 저자가 드러

나는 경우를 위주로 어문저작물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여섯째, 판타지 소설과 관련된 카테고리 사전 조사 결과 대부분이 자작 소설위주로 카페가 운영되기 때문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부 판타지 소설과 관련된 카페들 가운데 판타지 소설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시와 관련된 카페의 경우 저자가 명확히 표시되는 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과 관련하여 어문저작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여덟째,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의 상황이 발생하는 해당 카페의 경우에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3.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 분석

3.1 카페별 어문저작물 접속 및 이용 환경

주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을 전송시키고 있는 전체 14만개 이상의 카페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1,000개의 카페를 대상으로 그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사이트별 카페의 기본사항과 대상 카페의 제공정보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일반 이용자가 손님(guest)으로 해당

카페에 접속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조사 대상 카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카페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일반 이용자가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손님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즉, 일반 이용자가 전혀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접속하여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의 수는 1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회원가입만이 가능한 카페의 수가 735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카페들은 회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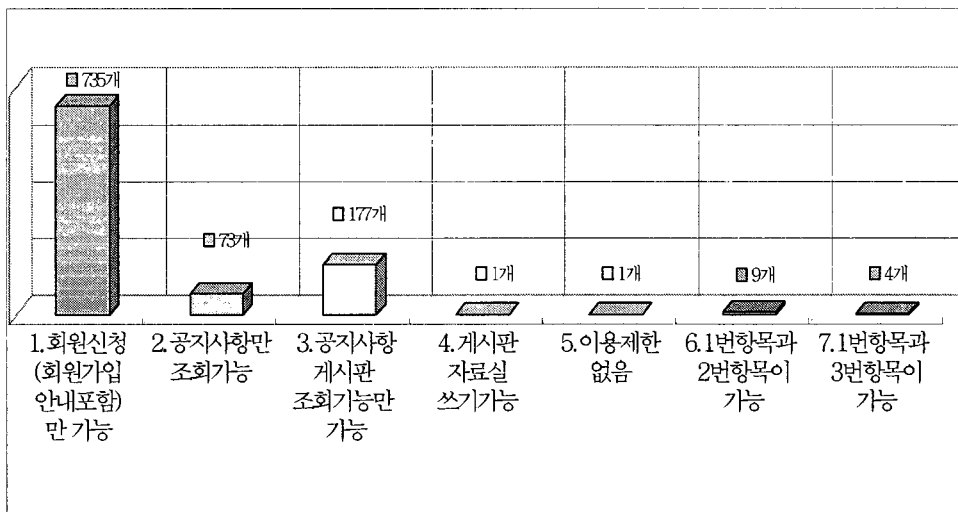
가입을 완료해야만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보의 공유가 임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된 이용자에 한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50개 카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지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7개 카페는 이와 더불어 게시판 조회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 이용자가 해당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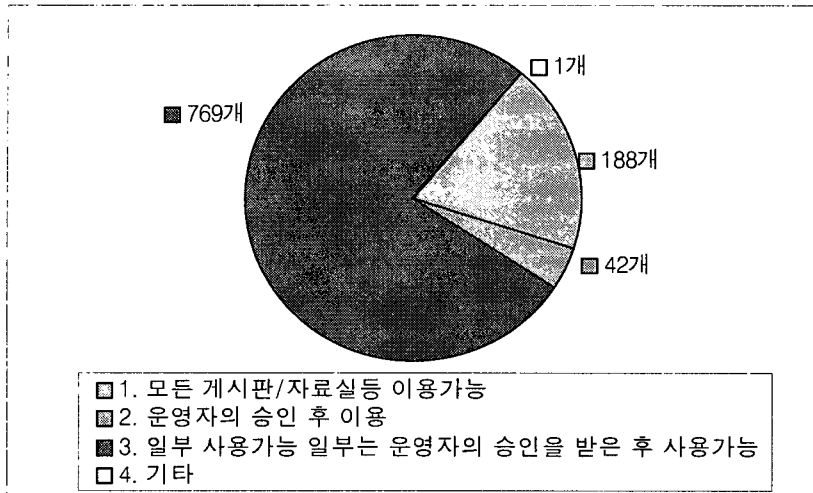
이용자가 해당 카페의 회원 가입만으로 모

<표 2> 손님(guest)으로 접속 가능 여부

1. 예	1,000개
2. 아니요	0개



<그림 1>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손님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



〈그림 2〉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188개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페, 769개의 카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자가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더라도 추후 반드시 카페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카페의 수도 42개나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수록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용자가 해당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더라도 카페의 모든 수록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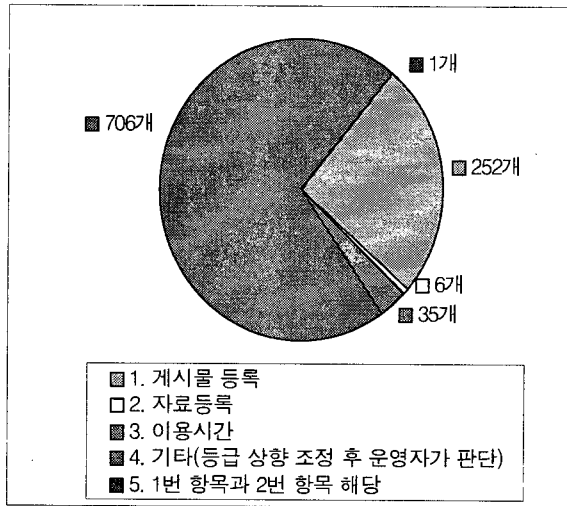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일반 이용자가 해당 카페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1개의 카페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 대상 카페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1개의 카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카페에서 정보의 제공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회원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사 대상 카페들 가운데 회원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즉, 이용자가 해당 카페에서 보다 많은 정보에

〈표 3〉 카페 수록 정보의 이용 요금 체계

① 무료	999개
② 회비/가입시	1개
③ 정액제/일정기간	0개
④ 후원금	0개
⑤ 종량제	0개



〈그림 3〉 회원등급제 카페에서의 회원등급 상향 조정 방법

접근하고자 회원의 등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252개 카페는 게시물 등록수를, 6개 카페는 자료등록수를, 35개 카페는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개의 카페는 회원등급 상향 조정예 게시물의 등록수와 이용시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물론 706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이용자로부터 회원등급의 상향 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운영자가 각각 판단하여 등급을 올려주고 있다. 이는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용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섯째, 해당 카페별 몇 개의 다른 웹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 카페들 가운데 타 웹 사이트와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각 사이트별 카페의 운영은 조금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연결고리가 많이 생성되고

〈표 4〉 카페와 연결된 타 웹 사이트의 수

100개 미만	999개
500개 미만	1개
1000개 미만	0개
1000개 이상	0개

있지 못한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정보자료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을 때에 삼시간에 많은 사이트로 퍼져나가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3. 2 주요 사이트의 카페별 제공정보 현황

국내 주요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1,000개의 조사 대상 카페 및 웹 사이트의 이름은 '미소의 아름다운 샵터', '글사랑 모임' 등과 같이 각 카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서정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카페 및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실태 조사를 위해 표본 카페 및 웹 사이트의 선정은 '다음 카페' 중 시와 관련된 카페를 465개, 소설과 관련된 카페를 465개를 선택하였고, 또한 '네이버'와 '프리카', '싸이월드'에서 시와 소설에 관련된 70개를 포함하여 총 1,000개를 표본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시와 관련된 카페에서는 시에 관한 정보만, 그리고 소설과 관련된 카페에서는 소설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카페 역시 시와 소설에 대하여 각각 50%씩의 비율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접속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표본 선정 작업의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의 속성이 시나 소설이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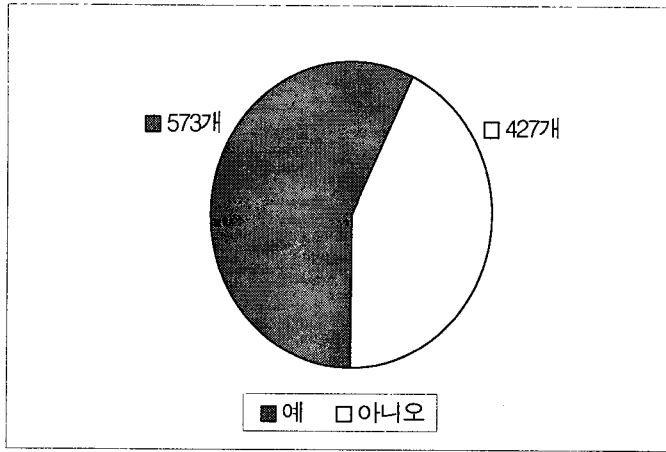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카페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이트의 해당 카페별 제공 정보 및 정보 유통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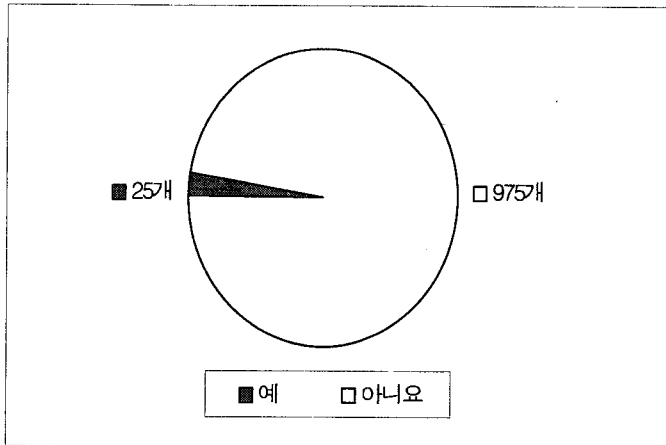
첫째, 해당 카페가 어문저작물(시, 소설,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국내 주요 사이트의 조사 대상인 1,000개의 카페 가운데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카페는 573개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카페도 427개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인터넷 카페 혹은 사이트들이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표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57% 대 43%의 비율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사이트별 운영중인 카페의 정보 유통 현황이 그리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나 저작권 관련단체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유통하는데 있어서 가치 판단 및 법제화를 도모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 대상 카페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카페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수록중인 어문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어문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한 카페 중 저작권 관련 문구를 표기한 카페는 전체의 2.5%에 불과한 25개 카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보호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카페의 운영자와 어문저작물을



〈그림 4〉 어문저작물(시, 소설, 논문 등)의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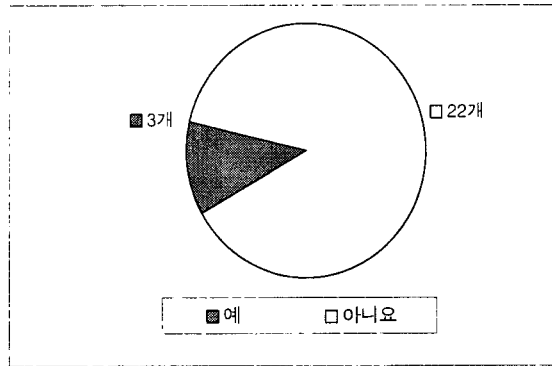


〈그림 5〉 저작권 관련 복제, 배포, 전송 금지 안내 문구 표시

카페에 올리는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기의 경우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수록중인 어문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카페들 가운데 〈그림 6〉과 같이 불과 3개의 카페만이 구체적인 이용방법(저작권자 허

락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요 사이트별 거의 모든 카페가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관련 문구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카페의 경우에 이러한 관련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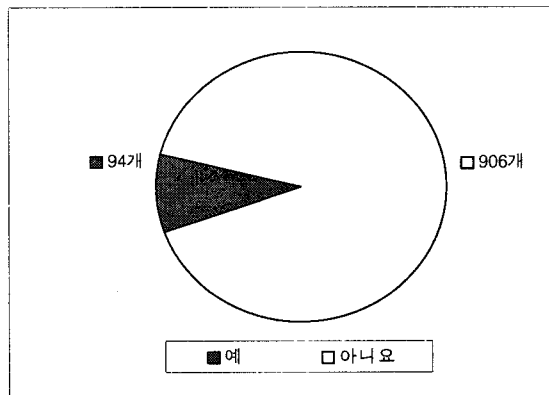


〈그림 6〉 구체적인 정보 이용 방법(저작권자 허락 등)의 제시 여부

넷째, 일반 이용자가 조사 대상 카페에 수록 중인 어문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이처럼 거의 모든 카페가 다운로드 대신 게시판의 글을 웹 브라우저로 열람하는 정도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카페 가운데 약 10% 정도는 어문저작물을 파일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어문저작물의 불법 전

송과 관련하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서서히 어문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7〉 어문저작물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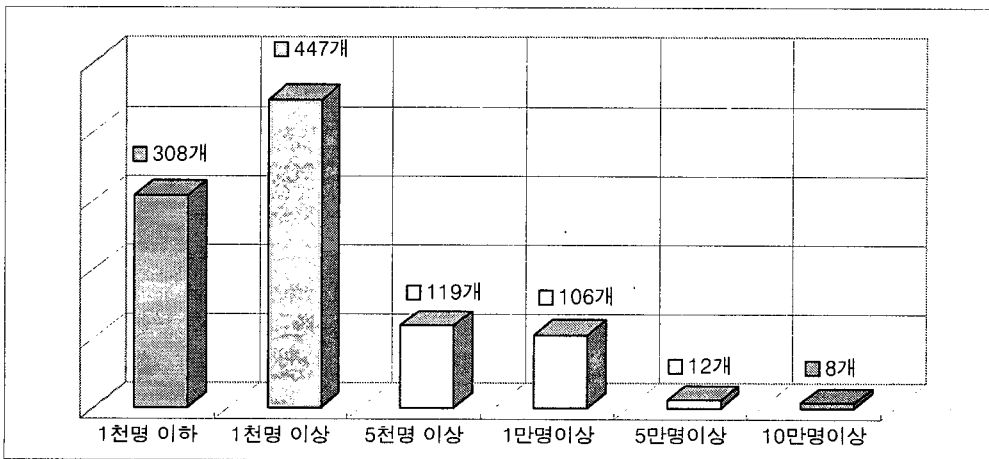
다섯째, 일반 이용자가 조사 대상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 1,000개 카페의 평균 회원수는 7,3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해당 카페에 가입된 회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5천명이하 1천명이상인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카페가 447개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조사를 위해 카페를 선정할 때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1천명 이하인 카페도 308개로 나타났다. 여기서 카페의 회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확률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의 비율은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 8개중 5개 카페, 회원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에 12개 중 8개 카페, 그리고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06개 중 54개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페의 회원수가 많고 적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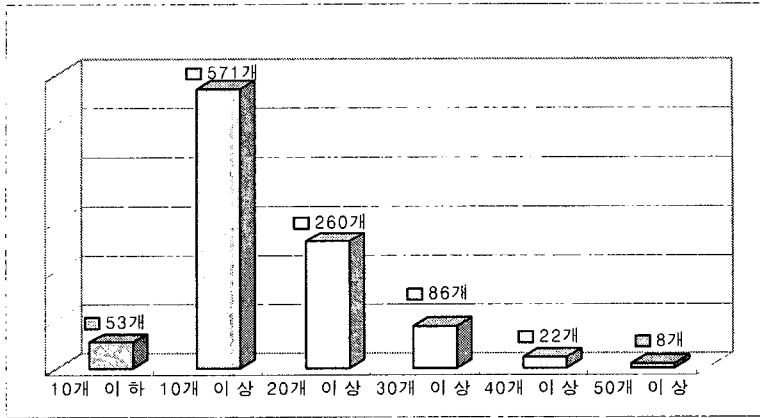
이용자에게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내 주요 사이트별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메뉴의 수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하나의 카페가 19개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개미만 10이상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9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메뉴의 수를 조사한 이유는 다음의 단계에서 카페별 운영중인 메뉴의 수와 어문저작물 유통과의 관계를 알기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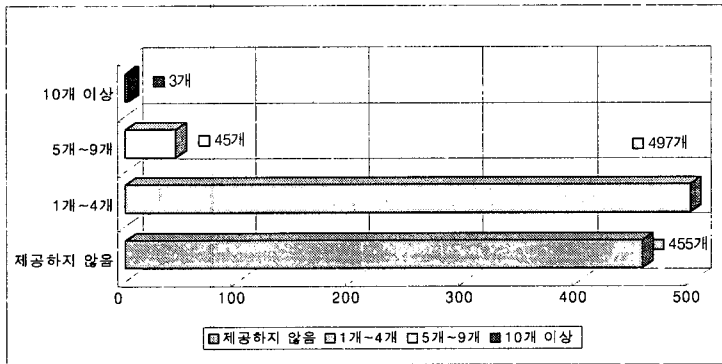
일곱째, 상기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메뉴 가운데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그림 10>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를 조사한 결과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카페가 545개이며, 그렇지 않은 카페의 수는 455개로 나타났다.



<그림 8> 주요 사이트별 해당 카페의 회원 가입 수



〈그림 9〉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메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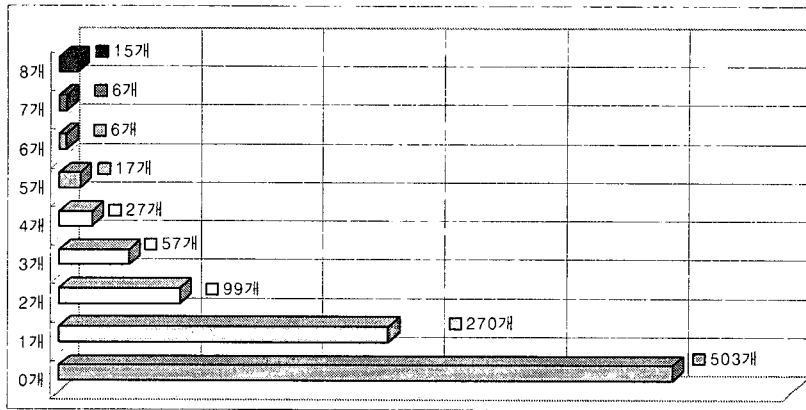
〈그림 10〉 해당 카페의 운영중인 메뉴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메뉴의 수

그러나 앞에서 어문저작물의 게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카페가 〈그림 4〉에서와 같이 573개이며 그렇지 않은 카페는 427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문저작물을 제공하지 않는 메뉴의 수가 455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원가입만으로 게시판을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카페의 경우에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카페의 경우에는 등업(등급 상향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여덟째, 상기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어문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메뉴 가운데 실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에 대한 분포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즉, 어문저작물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카페는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단계에서 '비공개' 등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합해서 503개이며, 1개 이상의 메뉴에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카페의 수는 4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상기 해당 카페에서 어문저작물을



〈그림 11〉 카페의 어문저작물 관련 메뉴 중 실제 이를 제공하는 메뉴 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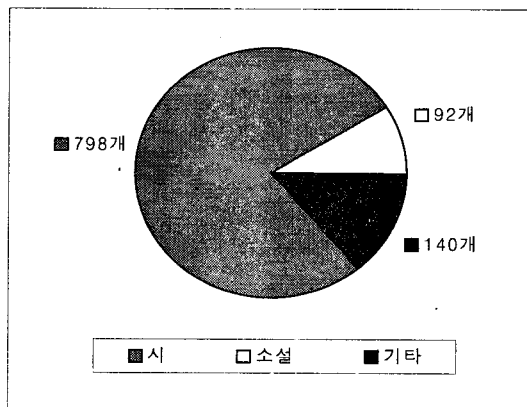
제공하고 있는 메뉴 가운데 시와 소설의 분포 정도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 가운데 시와 관련된 카페 465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가 798개로 나타났다. 또한 소설과 관련된 카페 465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92개, 기타 사이트 70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터넷 웹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문저작물 중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이 소설보다 저작권 법과 관련하여 더욱 좋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3. 3 어문저작물 유형별 카페의 분석 현황

지금까지 조사·분석한 내용을 어문저작물의 유형인 시와 소설 및 기타 카테고리별로 나누



〈그림 12〉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메뉴 중 시와 소설의 분포

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과 평균을 구하면 다음의 <표 5>, <표 6>, <표 7>와 같은 분석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 5>에서와 같이 시와 관련된 카페 465개 내에 존재하는 전체 게시된 자료의 수는 총 1,226,390건으로, 이러한 자료 가운데 774,817건이 어문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 조회수의 평균은 1,347.4회이며, 시와 관련된 카페에 게시된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는 376.236회로 나타났다.

소설과 관련된 465개의 카페 내에 존재하는 전체 게시된 자료는 <표 6>에서와 같이 총 9,198건이며, 이러한 모든 자료가 소설과 관련된 어문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에 비해 자료의 개수가 적지만 어문저작물을 수록하는 메뉴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물이 어문저작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설의 경우에는 시와 비교하여 최고 조회수와 평균 조회수가 모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시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소설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다음’ 사이트를 제외한 기타 사이트(‘네이버’, ‘프리챌’, ‘싸이월드’)와 관련된 70개 카페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기타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어문저작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연코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 자료는 15,269건이며, 소설의 경우는 4,380건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시와 소설이외의 어문저작물 자료의 수도 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사이트에서는 시와 소설이외의 어문저작물을 포함하여 자료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4.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 분석 결과 및 대책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웹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 관련 카페 및 홈페이지들을 중심으로 불법 전송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문저작물 유통 카페별 접속 및 이용 환경, 주요 사이

<표 5> 시와 관련된 465개 카페의 분석 현황

전체 게시된 자료의 합	1,226,390개
시 관련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774,817개
최고 조회수의 평균	1,347.4회
평균 조회수의 평균	376.236회

<표 6> 소설과 관련된 465개 카페의 분석 현황

전체 게시된 자료의 합	9,198개
소설 관련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9,198개
최고 조회수의 평균	432.538회
평균 조회수의 평균	172.897회

〈표 7〉 기타 사이트외관련된 70개 카페의 분석 현황

전체 게시된 자료의 합	34,491개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19,719개
최고 조회수의 평균	488.557회
평균 조회수의 평균	89.328회
시 관련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15,269개
소설 관련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4,380개
기타 관련 어문저작물 자료의 합	70개

트의 해당 카페별 제공정보 현황, 어문저작물의 유형별 카페의 분석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어문저작물 유통 카페별 접속 및 이용 환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모든 조사 대상 카페는 이용자가 손님(guest)으로 접속이 가능하였다. 이는 모든 카페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카페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중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일반 이용자가 단지 회원가입만이 가능한 카페의 수가 735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카페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해야만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보의 공유가 임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된 이용자에 한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용자가 해당 카페의 회원 가입만으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188개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페, 769개의 카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자가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더라도 추후 반드시 카페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는 카페의 수도 42개나 되었다.

(4) 조사 대상 카페 가운데 1개의 카페를 제외하고, 모든 카페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1개의 카페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카페에서 정보의 제공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이용자가 해당 카페에서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자 회원의 등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252개 카페는 게시물 등록수를, 6개 카페는 자료등록수를, 35개 카페는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개의 카페는 회원등급 상향 조정에 게시물의 등록수와 이용시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물론 706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이용자로부터 회원등급의 상향 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운영자가 각각 판단하여 등급을 올려주고 있다.

(6) 조사 대상 카페들 가운데 타 웹 사이트와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수가 100개 미

만인 경우가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각 사이트별 카페의 운영은 조금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주요 사이트의 해당 카페별 제공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국내 주요 사이트의 조사 대상인 1,000개의 카페 가운데 어문저작물을 게시하는 카페는 573개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카페도 427개로 나타났다.

(2)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 카페 중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문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한 카페는 전체의 2.5%에 불과한 25개 카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수록중인 어문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카페들 가운데 불과 3개의 카페만이 구체적인 이용방법(저작권자 허락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대상 카페 가운데 약 10% 정도는 어문저작물을 파일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카페는 다운로드 대신 게시판의 글을 웹 브라우저로 열람하는 정도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조사 대상 1,000개 카페의 평균 회원수는 7,329명, 5천명이하 1천명이상인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카페가 447개로서 가장 많았다. 또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의 비율은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 8개 중 5개 카페, 회원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에 12개 중 8개 카

페, 그리고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06개 중 54개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6)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메뉴의 수는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하나의 카페가 19개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개미만 10이상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9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상기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메뉴 가운데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를 조사한 결과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카페가 545개이며, 그렇지 않은 카페의 수는 455개로 나타났다.

(8) 상기 해당 카페에서 운영중인 어문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메뉴 가운데 실제 어문저작물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카페는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단계에서 '비공개' 등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합해서 503개이며, 1개 이상의 메뉴에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카페의 수는 4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전체 조사 대상 1,000개의 카페 가운데 시와 관련된 카페 465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가 798개로 나타났다. 또한 소설과 관련된 카페 465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92개, 기타 사이트 70개 중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메뉴의 수는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어문저작물의 유형별 카페의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시와 관련된 카페 465개 내에 존재하는 전체 게시된 자료의 수는 총 1,226,390건으로, 이러한 자료 가운데 774,817건이 어문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 조회수의 평균은 1347.4회이며, 시와 관련된 카페에 게시된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는 376.236회로 나타났다.

(2) 소설과 관련된 465개의 카페 내에 존재하는 전체 게시된 자료는 총 9,198건이며, 이러한 모든 자료가 소설과 관련된 어문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에 비해 자료의 개수가 적지만 어문저작물을 수록하는 메뉴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물이 어문저작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설의 경우에는 시와 비교하여 최고 조회수와 평균 조회수가 모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3) 기타 사이트('네이버', '프리챌', '싸이월드')와 관련된 70개 카페 내에 존재하는 어문저작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연코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 자료는 15,269건이며, 소설의 경우는 4,380건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시와 소설이외의 어문저작물 자료의 수도 70건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웹 사이트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국내 주요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보호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카

페의 운영자와 어문저작물을 카페에 올리는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문저작물 가운데 시와 관련된 어문저작물이 소설보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태 조사 도중에 이용을 막거나 등급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카페들이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돌아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많은 경우에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수록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해당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카페의 모든 수록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관련 인식 제고가 곧바로 카페 운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제반 인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조사 대상 카페들 가운데 타 웹 사이트와의 연결되어 있는 수가 아직은 100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각 사이트별 카페의 운영은 조금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연결고리가 많이 생성되고 있지 못한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정보자료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을 때에 삼시간에 많은 사이트로 퍼져나가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정보의 연결고리가 순식간

에 형성되었다가 사라지지만, 카페의 경우에는 정보의 연결고리가 순식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연결되었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보의 연결고리의 생성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현상을 서로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부정적·긍정적 현상을 함께 고려할 때, 인터넷 웹 사이트의 어문저작물(시와 소설)의 불법 전송은 아직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서서히 어문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인터넷 웹 사이트별 카페 운영자와 카페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제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양동철 2003, 15-17). 우선,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는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를 촉구하고, 이어서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솔루션범하여 해당 사이트의 카페 운영자 및 카페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과 같은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저작권의 발전방향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권리자의 보호 범위와 수단의 개발, 그리고 이

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조정권 2004, 44-50).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을 지향한다면, 정보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강국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정부와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이 함께 저작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세계 각국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이용자의 지식정보 획득에 대한 욕구 증가, 지식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화 기반시설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지식정보의 유통에도 직접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웹 사이트 상에 수많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카페들과 홈페이지들이 운영되면서 어문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 규범들에 관한 논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싫든 좋든 따지기 이전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어문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관련 국제 규범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세계 저작권 협약(UC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Copyright Treaty) 등이다. 이러한 국제 규범에서는 그 제한과 예외를 아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화관광부 저작권과 2004, www.mct.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www.copyright.or.kr). 이러한 각각의 규범들은 (1)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2)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3)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과 예외를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홍재현 2004, 33-47, 현대호 2000, http://home.cein.or.kr/~jacopson/course/course3.htm).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상대 우위에 있는 자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무역상대국에 상기 저작권 관련 국제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다시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와 저작권 관련 기관(이를테면, 어문저작물을 다루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센터) 및 인터넷 웹 사이트(카페, 홈페이지 등 포함)의 운영자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사회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어문저작물 유통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조화롭게 수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시와 소설로 국한하였지만, 그 범주를 논문 등을 포함한 전체 어문저작물로 확대한다면, 이 문제를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식정보 속국 및 문화 예측화를 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생산원가의 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합일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저작권 발전 동향에 보조를 맞추면서, 선진국 및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한 제반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정보트러스트운동이나 정보공유 라이선스운동 등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정보서비스기관과 함께 어문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저작권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3)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정부 부처, 이를테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단속 또는 제재 지향적이기보다는 국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저작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기구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가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1) 현재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시와 소설의 불법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실태분석 결과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어문 저작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침해 현황, 이용 현황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단속 또는 제재 이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포털, 카페, 홈페이지 및 동호회 등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어문저작물을 게재·운영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위반 사례를 지

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형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면서,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기술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인터넷 카페 및 홈페이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저작권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지식정보 이용 및 접근권을 보장하며, 효율적인 지식정보서비스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형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카페나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2) 대형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카페나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지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일, 최성균. 2002.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 대책」. 서울: 문화관광부·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곽동철. 2003.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에 있어서 인식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113-130.
- 김기태. 2002. e-book과 저작권. 『복사와전송』, 겨울호: 9-10.
- 김현철. 200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복사와 전송』, 겨울호: 7-8.
- 바로복닷컴. 2002.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안내서. [팜플렛]
- 송영식, 이상정. 2003.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 양동철. 2003. 해외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정보통신윤리』, 2월호: 15-17.
- 와이즈북토피아. 2003. 와이즈북토피아 전자책 도서관. [팜플렛]
- 윤선희. 2001. 인터넷저작권 보호와 대책. 『정보통신윤리』, 12월호: 17-20.
- 윤성천. 2002.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복사와전송』, 겨울호: 16-19.

- 이호흥. 2004. 저작물 '일부분' 이용에 관한 적정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4 저작권 세미나 자료집』 2004년8월3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임원선. 2002. 복사와 저작권, 그리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복사와전송』, 창간호: 17-19.
- 전삼현. 2003. 해외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정보통신윤리』, 2월호: 15-17.
- 정석철. 2003. 인터넷저작권 침해의 실태와 문제점. 『정보통신윤리』, 2월호: 12-14.
- 조정권. 2004. 도서관 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1(8): 44-50.
- 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2004. 「2004 IIPA 보고서」. 서울: 동 위원회.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및 제안」. 서울: 동 센터.
- 현대호. 2000.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http://home.cein.or.kr/~jacopson/course/course3.htm>>.
- 홍재현. 2004.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서비스와 저작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4 저작권 세미나 자료집』 2004년8월3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황적인. 2002. 복사권이란 무엇인가? 『복사와전송』, 창간호: 32-33.
- Hawkins, Donald T. 2002. "Electronic books: reports of their death have been exaggerated," *Online*, 26(4): 42-48.